

# 탈냉전시대 문학과 문화를 돌아본다

유임하 | 문학평론가

21세기의 한국 작가들은 역사적 부채에서 해방되어 내면과 욕망을 거론하며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다. 냉전의 시대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시대적 필연성에 화답해야 하는 일이 절실한 현실에서 이 지폐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문학의 풍경은 80년대의 후유증을 반복하며 독자들을 짜증나게 만든다.

## 광복 60년과 한국 사회의 변화

오늘의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들은 자주 혼란으로 표현되곤 한다. 하지만 그러한 표현이나 반응은 그리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냉전질서의 해체와 함께 침묵당한 것들과 억눌린 것들이 제 자리를 잡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변화는 그간 유보되고 지연되었던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의미 있는 혼돈'이라고 해야 옳다.

광복 이후의 정치적 문화적 현실은, 시민적 주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것들로 충만한 현실에서 긍정적인 가치들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세계의 냉전질서를 받아들이면서 민족 내부에서는 좌우 이데올로기의 분열과 흑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천신만고 끝에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출범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의 출발은 그 역사적 의의에 비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국가의 첫 행보는 식민지 시대의 유제(遺制)들을 효과적으로 단절하지 못한 채 산적한 과제들을 식민지 시대의 경험으로 해결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남루함을 딛고 지금과 같이 세계가 선망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련과 희생과 인내가 뒤따랐다.

광복 60년이라는 연륜은 수많은 곡절과 파란, 수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것이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 신탁통치 논란과 군정시대, 10·1대구사태와 4·3제주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여순반란, 6·25전쟁과 휴전, 남북분단체제의 고착화, 4·19혁명과 자유당 정권의 붕괴, 5·16쿠데타와 군사정권의 등장, 개발독재, 월남 파병과 한일수교, 7·4남북공동성명, 유신체제의 등장과 몰락, 1980년 서울의 봄, 광주 민주항쟁과 군사독재정권의 출현, 6월 국민항쟁과 호헌철폐, 민간정권의 탄생, IMF사태 등등……. 현대사의 궤적 안에는 어느 한 사건도 쉽게 지나쳐 버리기 어려울 만큼 희생과 수많은 곡절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이 어두운 굴곡에서 눈길을 돌려보면,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사실도 있다.

하지만, 성장신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선망 어린 눈길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

제적 활력에 걸맞는 문화적 심성이 아닐까 싶다. 문화가 남루한 나라가 세계에 존경받는 일이란 있을 수 없겠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은 이미 『백범일지』에서 이런 문제를 통찰한 바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운 나라가 문화의 강국이기를 원했다. 소국이긴 해도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꿈꾸었던 것이다.

과거사 진상규명법의 발효와 함께, 그간 희생과 침묵을 강요당했던 사회의 온갖 계층들의 개인적 기억들이 분출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변화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처 치유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의 배상 책임을 국가가 자임하고 나선 것은 탈냉전시대에 걸맞는 우리 사회의 진전과 성숙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또 하나의 과거가 있다. 반공의 이름으로 강요되었던 무수한 국가 폭력과 개인에 대한 침탈의 상처가 그것이다. 도처에서 고개를 내미는 역사의 혼령과 희생자 가족들의 간절한 신원(伸冤)은 유보되어 온 역사의 부채들이 무엇인가를 되새김질하게 만든다. '현재화된 과거'는 냉전시대의 봉인이 풀리면서 해결되지 않은 역사를 망령으로 등장시킨다. 망령의 출현은 은폐된 역사의 진상을 밝혀 이들을 제자리에 온전하게 배치해야 하는 몫이 지금 우리에게 부과된 과제임을 일러준다.

### 냉전시대의 부정적 유산들

광복 60년의 역사적 경로는 '냉전의 시대'라는 말로 명제화된다. 이 말이 합당한 것은, 6·25전쟁의 여파가, 분단체제의 장기지속이 초래한 냉전적 사고가 만들어낸 모든 굴레가 우리 사회 전반을 옥죄어 왔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의 유산과 대면한다는 것은 '시민이라는 주체의 위태롭고 아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서사시적 명제'이다.

그간 한국 사회는 반공만이 국가의 절대적인 가치이자 정치의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 기초해 있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도 반공의 폭력성과 모순을 감지할 수 없었던 것은 반공의 억압과 굴레가 인간을 주조하고 그러한 개인들이 살아가는 사회 현실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만든 데 그 원인이 있다. 반공의 논리란 적대적인 이념의 타자 없이 생겨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악이라는 대타적 개념 없이 선이라는 개념이 정립될 수 없듯이,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와 관련된 일체의 가치와 존재들을 진영화하며 대타화된 것들을 모두 적(敵)으로 상징한다. 냉전의 이 같은 논리는 국제 냉전구도가 한반도에 관철되면서 '폭력과 증오의 정치학'으로 자리 잡았다.

해방 이후의 현실은 극적이라고 할 만큼 안타깝게 대립과 갈등의 대치국면으로 치달았다. 해방을 전후로, 기독교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함에 따라 사회주의가 이식되었고, 농업 중심의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남한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이식되었다. 냉전의 씨앗이 강과를 적대성으로 무성하게 자라난 것은 서로 다른 사회적 토양에 이질적인 이데올로기가 적용된 현실의 결과였던 것이다. 북한 사회는 산업국유화 조치, 식민 유체와의 단절, 노동자 농민의 무산계급이 주인이 되는 사회 개혁을 내걸었고, 이를 수락하지 않는 계층이나 집

해방을 전후로, 기독교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함에 따라 사회주의가 이식되었고, 농업 중심의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남한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이식되었다.

단은 반동주의로 내몰았다.

북한 사회의 성마른 사회개혁과 타협할 수 없었던 월남자들은 북한 사회를 원망과 증오의 대상으로 고정시켰다. 그 결과, 월남 계층은 남한 사회의 정치 헤게모니 투쟁에서 반공주의를 확산시키는 전위이자 주체가 되었다. 이들의 북한 사회개혁에 대한 부정적 체험은 6·25전쟁 이후 더욱 강고해져 반공의 공공기억으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해방 이후의 역사는 '좌익의 탈호와 빨치산들의 약탈'이 '6·25전쟁의 불길한 전조'였다고 듣고 배웠다. 해방기 역사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은, 우편향적 역사가 좌익의 역사를 공백으로 처리한 역사 왜곡의 결과였다. 세계 구도의 냉전체제가 한반도에 관철된 결과 좌우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야기되고, 이어서 남북의 체제분립으로 이어진 뒤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경로가 우리의 인식 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반공주의라는 내 마음의 검열관은 전쟁 발발의 경로나 우익세력이 자행한 집단폭력과 학살, 북한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불온한 것으로 철저히 함구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승복의 절규는 괴물 형상의 빨갱이를 즉각 떠올리고 그 생생한 공포는 공산주의와 현대사에 관한 어떤 의문도 차단해 버린 것이다.

'반공' 또는 '반공주의'라는 말 안에는 역어인 'anti-communism'이라는 역어로 포착될 수 없는 초과, 잉여의 부분이 있다. 이 말의 연원은 저 여순

사건이 발발하는 1948년 어귀로 소급된다. 현대사의 냉전적 시각을 전복시켜 문제적 차원으로 만든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여순사건의 기억을 불러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해방 직후의 우리 사회는 지주와 자본가들의 비협조, 방관으로 농지개혁의 당위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식민 유제를 타파하려던 사회적 합의는 친일파의 득세로 좌절을 겪으며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건국의 출발점에서 빼적거리던 국가의 행보는 한 역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여순반란이 일어나자 이 지역을 재빨리 봉쇄한 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좌익분자들을 축출하며 민족의 대변자라는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이상은 임중명, 「여순사건의 폭력과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 형성」, 『역사비평』, 2003년 여름호 참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좌파와 진보, 중간파와 중도우파, 우파 등으로 분열된 성원들을 사상공동체로 묶어 국민을 창출했던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양민과 폭도로 거칠게 구획한 다음, 다시 사상의 검열을 거쳐 인준된 존재들만으로 국민을 만들어냈고, 6·25전쟁의 발발과 함께 전시체제를 구축하며 더욱 강고한 반공 규율사회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우리가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민이라는 통념도 실은 친일파 순응, 반일파 저항의 폭넓은 사상적 스펙트럼을 폭력적으로 이항대립화하고 여과시켜 추

출한 상상의 순수개념일지 모른다.

반공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 폭력의 정치학을 양산해 온 국사이자 이데올로기적 기반이었고, 끝없이 '전쟁의 정치적 효과'를 지속시켜 사회성원의 내면에 공포와 불안의 기제를 기입해 놓았다. 이 말은 반공주의가 냉전체제, 전시체제, 분단체제를 기반으로 삼고 전쟁을 6·25라는 시점에만 고정시켜 공포와 불안을 유통시킨 것, 그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신장을 유보시킨 것, 개발독재의 전사들로 훈육시켜 경제화된 개인을 주조한 것을 정당화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냉전시대의 문화적 유산이란 그런 점에서, 순응하는 국민이라는 기계를 강요해 온 일체의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규율체계로서 근대화의 동력을 제공한 산업전사의 이미지 만들기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규율체계를 벗어나 시민적 주체로서의 성찰이 가능해진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펼쳐진 '민중화의 도정' 이후이다.

냉전시대의 논리 안에서는 그 논리에 사로잡힌 개인들에게 반공의 자명한 전제들을 회의하거나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조차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여기게 만드는 공포를 내면에 기입한다. 냉전의 시대에 문학의 사유는 사회 개혁에 대한 정당한 발언이나 문제제기조차도 절대 악으로 규정된 북한의 공산주의를 따르는 에피고넨꼴로 매도되거나 탄압당했다. 1950년대 사회 상층부에 만연한 향락과 방종을 비판적으로 보았던 정비석의 「자유부인」이 '중공군 몇 십만'에 해당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다고 비난받았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 사회적 조건에서 남정현의 소설 「분지」가 북한의 기관지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필화를 입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문학의 발언이 용공으로 매도되는 현실은 냉전의 논리가 가진 비타협성과 배제의 논리, 폭력성의 얼굴을 가늠하게 해준다. 주지하듯이, '사상의 자

유'란 '그 사회가 반대하는 사상까지도 용인하는 자유'를 가리킨다. 한국 사회는 것처럼 타자의 사상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다. 반공 권력에 대한 공포는 검열의 두려움 속에서 본질에 대한 회의와 반성과 비판적 노력 자체를 감행할 수 없게 만든다. 남정현의 분지 사건(1965) 이후, 1960년대의 한국문학이 보여준 무력감과 위축된 모습은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에서처럼 가냘픈 생명의 확인으로, 혹은 『무진기행』에서 안개 자욱한 일상에서 죽음과 부패의 냄새를 피우는 처연한 삶을 대면하는 우울함과 힘겨움으로 나타난다. 이 우울함과 힘겨움은 경제화된 개인의 황량한 내면성, 비판과 성찰이 차단된 내면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게 만든다.

성수대교 붕괴 참사(1994)나 삼풍백화점 붕괴(1995)가 말해주는 것은 성장신화의 그늘이다. 이 일련의 참사는, 다소 논리의 비약일지 모르나, 압축성장의 그늘에 독초처럼 자라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허망한 구호와 자본주의적 욕망에 길들여져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지 모른다.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이끌었던 성장신화는 그 조급증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비판과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비판과 성찰을 차단시킨 것은 냉전의 논리에 길들여진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곧 냉전의 시대는 타당한 문제제기, 비판적 성찰을 감행하는 개인과 문화의 숙성을 가로막고 내면의 성장을 지체시킨 부정적인 토대였던

우리가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민이라는 통념도 실은  
친일과 순응, 반일과 저항의 폭넓은 사상적 스펙트럼을 폭력적으로 이항대립화하고  
여과시켜 추출한 상상의 순수개념일지 모른다.

샘이다. 최인훈이 “통일 없는 빵이 가져오는 것은  
아마도 도덕적 타락뿐일 것”(「유토피아의 꿈」)이라  
는 지적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유효하다. 그의 발  
언은 과거와 당대 현실에 대한 전모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물질의 향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  
적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부정적 면모에 대한  
비판과 통찰은 사회 불만의 표출로 곡해되고 ‘붉은  
괴물’ 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잔존한다.

#### 탈냉전의 관점과 한국문학의 행로

탈냉전의 관점에서 보면, 반공주의의 규율체계가  
만들어낸 희미한 풍경 하나가 포착된다. 그것은 오  
랫동안 유포되어온 ‘순수와 미적 자율성’이라는 신  
화이다. 해방 이후 문학사회의 좌우 논쟁을 거치면  
서 탄생한 순수문학의 논리는 박영희의 저 유명한  
사상전향의 선언,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예술”이라는 명제를 떠올리며, 일체의 이데올  
로기, 일체의 사회현실의 맥락을 소거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통용되는 절대 가치로서의 미적 자  
율성을 전제로 내건다. 문단사회의 좌우논쟁은 숨  
가쁘게 전개되었던 정치적 헤게모니 투쟁에 얼마  
간 닮아 있는데, 좌파문인들의 대거월북과 함께 새  
로운 ‘문단주도세력’ 들이 등장하며 남한문학의 성  
채를 무혈입성하기에 이른다.

미적 자율성의 신화가 표방하는 과거-현재-미래  
를 장악하는 흔들림 없는 절대가치란 과연 상정 가  
능한 것일까? 그러나 이는 냉전적 사고에 따라 현실

의 맥락을 가진 일체의 사상과 정치성을 배제하며  
구축된 문학 이념의 절대신화화, 문학의 욕망에 가  
깝다. 순수와 미적 자율성의 신화란 반공의 이데올  
로기적 기반 없이 배태되기 어려운 시대의 산물이  
었던 셈이다. 반공 규율사회 안에서 문학의 순수란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은 부정과 비판이 부재하는 고  
대의 세계나 전통, 영원한 가치들로 침잠하고 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문학은 냉전규율의  
방식과 응전해 왔다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 징후는 바로 현실 참여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론자들조차 자신들의  
현실참여 주장이 빨갱이의 그것과는 다른 정당한  
사회적 발언의 행보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처지  
였다. 이런 제약을 돌파하는 것은 유신독재가 시작  
되는 7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 어둠의 정체를 파악하고 새벽을 준비한 것이다.

반공주의가 권력과 정권안보로 이용되는 메커니  
즘이라는 점을 각성하면서 한국문학은 냉전논리와  
의 저항 전선을 구축하는데, 그 주역은 이른바 40  
년을 전후로 태어나 6·25전쟁의 기간을 유소년기  
로 보낸 작가들이었다. 1940년대를 전후로 태어나  
유소년기에 전쟁을 경험한 작가들로서 분단과 전  
쟁의 상처를 집요하게 추구해 나간 이들은 유재용  
(1936), 홍성원(1937), 이청준(1939), 한승원  
(1939), 김주영(1939), 김용성(1940), 전상국  
(1940), 문순태(1941), 이문기(1941), 현기영  
(1941), 김원일(1942), 박대순(1942), 이동하

(1942), 윤홍길(1942), 황석영(1943), 조정래(1943), 윤정모(1946), 김성동(1947), 오정희(1947), 이문열(1948) 등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장기에 경험한 전쟁의 생체기와 혹독했던 가난을 딛고 아버지의 시대에 자행되었던 이데올로기의 폭력성과 광기에 찬 시대현실을 응시하는 것을 필생의 문학적 테제로 삼았다.

홍성원의 『남과 북』(1971~1975 연재, 1978)은 비록 남한사회에 치우친 한계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의 국내외적 시각을 총체적으로 담고자 했으며, 황석영의 증편 『한씨연대기』는 반공규율사회가 얼마나 한 양심적인 인물을 생의 파탄으로 몰아갔는지를 냉철하게 추적했다. 가문 몰락의 처연함과 인간에 넘치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유장한 문체로 회고한 이문구의 연작 『관촌수필』, 아버지의 수수께끼 같은 부재와 죽음, 절대가난 속에 방치되었던 유년의 곤고함을 소년의 눈으로 담아낸 김원일의 「어둠의 훈」, 분단의 갈등을 속신의 세계로 화해시킨 윤홍길의 「장마」, 전쟁의 상처와 모성애의 참 뜻을 되새긴 전상국의 「아베의 가족」, 억압의 현실에서 겪는 공포증을 보여준 이청준의 「소문의 벽」 등이 바로 그 사례들이다.

21세기의 한국 작가들은 역사적 부채에서 해방되어 내면과 욕망을 거론하며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다. 역사의 부채에서 풀려나 내면과 욕망에 침잠하는 문학의 이러한 활강은 그다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내게는 냉전의 오랜 습속으로부터 풀려난 뒤 겪는 누적된 피로의 병리증상으로만 여겨질 뿐이다. 냉전의 시대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시대적 필연성에 화답해야 하는 일이 절실한 현실에서 이 자폐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문학의 풍경은 80년대의 후유증을 반복하며 독자들을 짜증나게 만든다. 그 식상함은 대중문화의 현란한 시뮬라크르와 속도감에 몸을 맡긴 게임보다 반복적이고 쇠

말적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치 생산을 방기한 도덕성의 상실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독자의 외면과 한국문학의 병증은 짐작되고도 남는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함께 분출되기 시작한 식민지의 기억과 냉전시대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을 감안하면, 한국문학의 도덕성 상실에 따른 후유증이란 실로 시대착오적이다. '현재화된 과거'를 찬찬히 통찰하는 묵은 문학에 남겨진 시대적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찰이 감행되어야 할 시점에서 토로하는 내면의 욕망은 그 어떤 설득력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을 장악한 소설의 주류가 연애와 짝짓기에 몰입하는 영화와 드라마, 연예인 토크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은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고 시장논리에 굴복한 한국 사회의 천민성 탓일까.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망각한 사실을 두고 보면 사태는 자명하다. '전쟁의 정치적 효과'가 여전히 동북아시아를 지배하는 현실에서 이를 외면한 채 욕망의 향유에 매몰된 한국문학의 면모는 시장의 논리를 극복하려는 치열함의 부재에 더 큰 원인이 있어 보인다.

냉전의 시대에 한국문학이 자임해온 냉전이데올로기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그 극복을 위한 험거운 도정이 1940년대를 전후로 탄생한 작가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요소가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맹렬하게 타올랐던 냉전시대의 유산에 대한 통찰은 홍성원, 김원

‘사상의 자유’란 ‘그 사회가 반대하는 사상까지도 용인하는 자유’를 가리킨다. 한국 사회는 그러함 타자의 사상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다. 반공권력에 대한 공포는 검열의 두려움 속에서 본질에 대한 회의와 반성과 비판적 노력 자체를 감행할 수 없게 만든다.

일, 조정래 등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홍성원은 이미 『남과 북』 개정판을 통해서 6·25전쟁의 남한 중심의 서사구도를 남북의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로 잡아 놓았다. 또한 김원일은 『불의 제전』을 완결하고 나서 거창양민학살을 다룬 『겨울골짜기』를 전면적으로 개정했고, 인혁당 사건을 다룬 『푸른 혼』을 상재했다. 조정래는 『태백산맥』 이후 『아리랑』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근현대사에 대한 장대한 민족의 서사를 부조해 놓았다.

한편, 황석영은 영어의 몸을 벗어나 『오래된 정원』 『손님』 『심청』으로 이어지는 근현대사 3부작을 일구며 한국 근현대사의 상처를 담아내었다. 중견 작가들의 작업은 젊은 작가들의 경향과는 크게 대조된다. 중견작가들의 성실함은 안락한 일상으로 퇴각한 다음 토로하는 개인의 소외와 욕망을 남루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탈냉전적 탈국가주의적인 의미 있는 흐름 하나가 감지되기도 한다. 침묵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조은의 『침묵으로 지은 집』(2003), 일포드호에 실려 멕시코로 이주한 1035명의 삶을 재현해낸 김영하의 『검은 꽃』(2003), 베트남에서 원죄로 가득 찬 과거를 참회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다룬 방현석의 『랍스터 먹는 시간』(2003), 인혁당 사건의 전말을 원혼들의 목소리로 담아낸 김원일의 『푸른 혼』(2005) 등은 외견상 20세기 초반부터 가까이 베트남 체험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질적인 텍스트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들 텍스트는 발언된 적 없는 잊혀진 역사를 망령과 여성과 디아스포라, 베트남인들의 목소리로 담아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냉전시대의 은폐된 기억들을 호명했다는 점에서 이들 텍스트는 주목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문학 텍스트의 공간과 사유가 20세기 초반까지 소급되고, 망각의 역사를 포함하여 중남미와 베트남으로 확장된 넓이를 감안하면, 냉전의 시대가 강요해 온 피해자의 위치를 벗어나 가해자, 타자로서 과거를 되짚어가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해방 60년을 맞는 우리 사회에서 냉전시대의 부정적인 유산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대적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맹목적인 증오로 분출되는 반공의 공허한 목소리는 이제 냉전 이데올로기의 규정력이 사라진 뒤에도 정체성의 일부로서 우리 내면에 남아 언제든지 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기에는 미일동맹이 강화된 새로운 냉전질서 안에서 일본의 망언이 독도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현실을 보면, 식민지 시대의 유산조차 아직 극복되지 못한 현실에서 냉전시대의 유산을 극복한다는 것은 여전히 미답의 영역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의 문학에는 자폐적인 욕망과 유아적인 퇴행에서 벗어나 역사와 사회의 타자들에 대한 응시와 이해를 통해서 깊은 통찰력을 발휘하는 활력을 회복하는 치열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